

# 중국어 상호작용 속에서의 ‘是嗎’ 연구\*

— TV토크쇼 『鏘鏘三人行』에서의 사용을 중심으로

박찬욱\*\*

## 〈目 次〉

1. 문제제기
2. 분석대상
3. 양적분석
  - 1) ‘是嗎’의 사용빈도와 분포
  - 2) ‘是嗎’의 사회변인별 분포
4. 질적분석
  - 1) ‘是嗎’의 출현형식
  - 2) ‘是嗎’의 담화기능
5. 결론과 함축

## 1. 문제제기

본고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용된 ‘是嗎’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빈도와 분포 등에 대한 양적 분석과 담화기능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실제 속에서 발견되는 언어의 다양한 사용 양상을 실증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是嗎’는 조사의문문(particle question)(Li & Thompson(박정구 등 2011)), 긍·부정의문문(yes-no question)(Chen 2000), 부가의문문(tag question)(Hu 2002, Chang 2006) 등으로 불리며 아래와 같은 예를 일종의 전형처럼 여겨왔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5680).

\*\*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부교수

(1) 20160425, 是嗎43<sup>1)</sup>

許子東: [毛-毛-毛-], 毛-毛主席早說過, 我喜歡業務派。談, 他直[1 說, 我喜歡業務派 1]。

→ 竇文濤: [1 共和黨, 算業務派, 是嗎 1]?

許子東: [2 對 2],

吳軍: [2 共和 2]黨是業務[3 派 3]的。

許子東: [3 對 3],

예(1)에서 竇文濤는 선행화자가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추론된 — “共和黨, 算業務派” — 에 대해 ‘是嗎’로써 확인을 요구한다. 그리고 許子東과 吳軍은 그 요구에 대해 각각 “對”와 동어반복으로써 요구된 내용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是嗎’가 없었다면 개인의 추측에 머물렀을 “共和黨, 算業務派”는 ‘是嗎’와 그에 따른 반응에 기인하여 참여자 간에 공유된 배경정보가 되었다.

그런데 상호작용 과정에서는 이로부터 벗어난 예가 다수 발견된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2) 20160517, 是嗎64

竇文濤: 你原來那個臉, ..圓一點兒,

梁文道: 嗯。

竹幼婷: 嗯。

→ 竇文濤: 跟鐵人, @@搞瘦了, 是嗎?@@

竹幼婷: 談, 辦婚[禮很累]。

竇文濤: [你覺不覺得]

梁文道: @@@

竇文濤: 談, 你-你覺得, ..你跟上一次見幼婷,

예(2)에서 사회자 竇文濤는 막 혼례를 마친 竹幼婷에게 이미지가 변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是嗎’를 사용하고 있다. 선행된 발화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是嗎’의 기능이라면(Hu 2002, p. 53; Chang 2006, p. 45) 예(1)과 같이 ‘對/不對’나 ‘是/不是’ 등 “瘦”에 관한 반응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예(2)에서는 그것이

1) 예문 번호와 함께 제시된 “20160425, 是嗎43”는 각각 프로그램 방영일과 ‘是嗎’의 일련번호를 가리킨다. 이하 동일하다.

부재하다. 오히려 竹幼婷는 “瘦”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是嗎’의 삭제 여부는 대화 전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한 예를 보자.

(3) 20160720, 是嗎143

雷頤: 誒, 一九二八年它, ...本來它一直用的是, 那個, 阿-阿拉伯的拼音, ...它突然凱末爾說, ...必須得sh-, 用這個, 拉-拉丁話的:, ...重新發明一套。

→ 竇文濤: 啊, 是嗎?

雷頤: 居然推-推行之後, 這-, ...現在的人, ...用的就是拉丁話的了, 你像現在的:, 他們的:, 學生啊, ...而一般知識分子去讀, 這個, 二十八年以前的文字, ... (0.6)就很困難了。

예(3)에서는 예(1), (2)와 달리 확인요청 대상, 즉 ‘是嗎’에 앞선 선행절이 부재하다. 뿐만 아니라 ‘是嗎’에 대한 반응어도 부재하다. 예(3)에서 ‘是嗎’는 그저 터키에 대한 雷頤의 1인 서술 과정에서 잠시 삽입된 형태로 출현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是嗎’는, 雷頤 역시 ‘是嗎’의 출현에 개의치 않고 발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점에서, 사회자인 竇文濤가 게스트의 참여를 독려하고 발화를 촉진하려는 데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현상은, ‘是嗎’가 문장 층위를 벗어나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의 독립된 기능 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상기 예들은, ‘是嗎’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당연시 해왔던 관념적 지식들에 재고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백화문 기반의 연구들을 벗어나 자연 담화 속에서 실제 ‘是嗎’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고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자연 담화 속 “是嗎”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부가/정반의문문을 논하는 과정의 일부로서만 대해 저 왔다 (Chen 2000, Hu 2002, Chang 2006, 이지원 2014).

‘是嗎’에 대한 관심 부족은 ‘부가된 의문문들’을 대하는 경향에 기인한다고 본다. 예컨대, 상당수의 어법서들은 부가의문문 하면 ‘是不是’, ‘好不好’, ‘對不對’ 등 정반 의문문이 문말에 부가되는 형식을 우선 제시하고 있다(劉月華 등 2001, pp. 792~793; Ross 등 2006, pp. 156~157; Li & Thompson[박정구 등 2011, pp. 510~511], 屈承熹 2010, p. 229). ‘是嗎’와 같은 ‘— 嗎’ 형식을 제시할 때도

‘行嗎’, ‘好嗎’, ‘可以嗎’ 등 지시나 요구 회행에 후행하여 동의나 확인 등을 요구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相原茂 등[박귀진 등 2007, p. 116]; 劉月華 등 2001, p. 787; Ross 등 2006, pp. 156~157). 이는 ‘부가된 의문문들의 프레임 속에서 ‘是嗎’가 쉽게 간과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또한 ‘是’를 중심으로 진행된 자연 담화 연구도 기본적으로 ‘是不是’가 위주였다(方梅 2005, 이지원 2014). 이에 본고는, 이들 선행연구와 더불어 자연담화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자연담화 상의 언어사용과 사회변인 간 관련성을 고찰하고 제도 담화 상의 언어사용 양상을 포착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일례로, TV 토크쇼라는 제도 담화 상의 ‘是不是’와 ‘是嗎’ 간 빈도는 일상 대화에 기초한 선행 연구의 그것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이지원(2014, p. 87, 표 1)에서는 말차례 끝에 출현하는 총 171회의 ‘是’ 부가의문문 중 ‘是不是’가 36회, ‘是嗎’가 5회를 보였다. 반면에 본고에서 수집된 방송 스크립트에서는, 말차례 끝을 의미하는 ‘?’에 기초하여 집계한 초보적 비교 결과, 말차례 끝에 출현하는 ‘是不是’가 총 326회 중 26회인 데 반해 ‘是嗎’는 총 151회 중 83회를 보여 이지원(2014)과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sup>2)</sup> 이러한 점은 ‘是嗎’가 “친구 간 대화에서는 드물지만 제도 대화 속에서는 의례적으로 사용된다”는 Hu(2002, p. 50)의 견해와 호응한다. 이는, ‘是嗎’ 본연의 다양한 기능은 물론 그것이 사용되는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기여하는 기능도 다를 수 있으므로 일상 대화뿐만 아니

2) 이에 관한 본고의 집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다만, 이는 웹상의 스크립트를 종합하여 얻은 집계값으로서 ‘是嗎’와의 비교군 간 총량과 추세를 참고하기 위해 산출한 예비 결과값이다. 범주별 정확한 분포 집계는 각 항목들을 실제 전사했을 때야 산출 가능할 것이다. ‘是嗎’와 관련하여, 스크립트에 기초한 아래 값과 실제 전사 결과에 기초한 표2 간의 오차는 이에 기인한다.

항목 분류	是嗎의 긍·부정대칭		TV 토크쇼 내 是嗎와 기타 항목 간의 양적 비교			합계
	긍정 是嗎	부정 不是嗎	是不是	是吧	對吧	
스크립트 내 빈도	151	6	326	218	310	1,011
스크립트 내 %	14.94	0.59	32.25	21.56	30.66	100
스크립트 전체 중 “X?” 빈도	123	4	27	94	91	339
“X?” 중 비부가의문문을 제외한 빈도	83	3	26	92	89	293

\* “鏘鏘三人行”에서의 ‘是嗎’, ‘不是嗎’, ‘是不是’, ‘是吧’, ‘對吧’ 간 분포  
(35시간 30분 분량의 방송 스크립트로부터 집계. 표 내의 “X”는 각 항목의 대체기호)

라 기타 여러 장르의 자연 담화 속 '是嗎'에 대해 다각적인 관찰과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을 소개한다. 그리고 대상으로부터 집계된 양적 결과를 제시한 뒤 각 집계값이 갖는 의미를 해석한다. 그 다음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견된 '是嗎'의 여러 담화기능에 대해 분석한다. 그런 다음, 사용 중에 드러난 '是嗎'의 상호작용적 의미를 담화기능에 기초하여 고찰하고 논의를 종합한다.

## 2. 분석대상

본고의 분석대상은 홍콩 鳳凰電視臺의 TV토크쇼인 “鏘鏘三人行”에서 4개월 간 (2016.4.1.~2016.7.29.)의 총 83회 방영분에서 취하였다. 영상은 주로 YouTube로부터 취하였고 자막 스크립트는 주로 鳳凰電視臺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집계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시간량	글자수	출현수	시간대비 是嗎 출현빈도
35:30:38	641,630	151	14분당 1회
25:39:45	465,759	151	10분당 1회

표1. 분석 대상 상세

수집된 자료는 시간량으로 약 35시간 30분, 글자수로 641,630자이다. 이 중에서 본고는 텍스트 분석도구인 AntConc를 이용하여 151개의 '是嗎'를 추출하였다. 이는 시간대비로 계산할 때 약 14분당 1회의 출현 빈도를 갖는다. 이들 151개는 프로그램마다 때론 적게, 또 때론 많게 분포되어 있는데, '是嗎'가 출현한 방영분만 추려낸 결과 약 25시간 39분, 465,759자 분량을 보였다. 본고는 이 중에서 다시, AntConc의 Concordance Plot 기능을 이용하여 '是嗎'의 출현 위치를 가늠하고, 그에 따라 파악된 '是嗎' 전후의 자연 발화를 F5(for Mac, 전사전용 프로그램)와 foot pedal을 사용하여 Du Bois 등(1993) 체계에 준해 전사를 시도하였다.

본고에서 주로 사용된 Du Bois 등(1993)의 전사 기호는 대략 다음과 같다.

- : 억양 종료
- , : 억양 지속
- : : 음의 지속
- : 억양 중단
- ... : (상대적으로) 짧은 휴지
- ... : (상대적으로) 긴 휴지
- ...(0.5) : 0.5초 간 휴지
- [ ] : 말 겹침
- <X X> : 인식 곤란한 부분
- @@ : 웃음

자연 담화 대상의 상호작용 연구에는 전사에 기댄 언어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是嗎’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는, 언어의 사용을 사회적 행위로 간주할 때, 말로써 성취되는 상호 조율과 양보, 쟁취 등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관점에 기반하지 않은 방송 스크립트는 문어적 이해만을 요구할 뿐 구어적 이해를 도모하지 못한다. 전사의 중요성과 관련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4) a. 20160609

竇文濤: 你看今天這個局面, 該相會的都相會了。  
 馬家輝: 等待好久, 等待見小君君。  
 → 竇文濤: 都已經見到上, 是嗎。  
 → 馬家輝: 對。  
 竇文濤: 你見到小君君什麼心情。

b. 20160609, 是嗎101

竇文濤: 談, 你看, 今天這個局面, 啊, ...〔該相會〕的都相會了。  
 @@  
 馬家輝: [什麼局面],  
 呃, 等待好久, 〔等待見小君〕君。  
 → 竇文濤: [都已經見到了], 是嗎=  
 周軼君: =呃。

→ 馬家輝: 對。  
 竇文濤: 你-那::, 見到這個:, 小君君, 什麼心情啊。

예(4a)는 방송 스크립트이고 (4b)는 본고의 전사물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是嗎'가 무엇에 대해 확인 요구를 하는가에 있다. (4a)에서 '是嗎'에 선행된 발화는 竇文濤 자신의 “都已經見到上”로서 '이미 만난 적이 있는지가' 확인 요청 대상이다. 반면에 (4b)에서 '是嗎'에 선행된 발화는 馬家輝의 “[等待見小君]君。”이다. 즉 '만나길 기다렸는지'가 확인 요청 대상이다. (4a)의 '是嗎'는 '만났음'과 호응하고 (4b)의 '是嗎'는 '만나지 않았음'과 호응한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馬家輝의 반응어는 모두 “對”이다. 그렇다면 '是嗎'가 확인을 요청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해석의 단서는 竇文濤의 “你-那::, 見到這個:小君君什麼心情啊。”에 있다. '상대를 만나보니 어떠한가'란 竇文濤의 말은 '만났었는데 만나 보니 어떠한가', 즉 (4a)에 근거하여 해석하기에는 어색함이 크다. 그러므로 (4b), 즉 '만나길 기다렸다고 하는데 만나보니 어떠한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비록 방송 스크립트도 전사물도 모두 방송 영상이란 동일 매체에 근거한 결과물이지만, 전사에 기댄 상호작용의 관찰이 부재하다면 실제 사용 속 언어에 대한 해석에는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 관점에 기초한 언어 현상 분석에서 실재(實在)의 재현 노력은 필히 요구된다.

### 3. 양적분석

#### 1) '是嗎'의 사용빈도와 분포

먼저 '是嗎'의 출현 위치를 유형별로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자. 출현 위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상위 범주로서, 말차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출현한 것인가(표2의 '2인') 아니면 한 화자의 말차례 내에서 출현한 것인가(표2의 '1인')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다시, 말차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是嗎'가 출현한 위치를

각각 (a) ‘一./。是嗎#’, (b) ‘#是嗎。/, 一’, (c) ‘一./。#是嗎# 一’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참고로, ‘#’는 말차례의 전환 또는 그 시도가 출현하는 지점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이들 세 범주는 기본적으로 ‘是嗎’가 모두 말차례의 전환지점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一./。是嗎#’는 확인 요청대상이 화자로부터 발화된 뒤 ‘是嗎’로써 말차례 전환이 시도되는 유형이다. ‘#是嗎。/, 一’는, 앞선 유형과 반대로, ‘是嗎’로써 화자의 말차례가 시도되는 유형이다. 그리고 ‘一./。#是嗎# 一’는 ‘是嗎’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를 가리킨다. 그에 대한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5) a. 一./。是嗎#  
 → 竇文濤: 共和黨, 算業務派, 是嗎?  
 許子東: 對,
- b. #是嗎。/, 一  
 周軼君: …… 而且它的那個卡的-  
 → 許子東: 是嗎, 但目前來說-
- c. 一./。#是嗎# 一  
 雷頤: …… 重新發明一套。  
 → 竇文濤: 啊, 是嗎?  
 雷頤: 居然推- ……

그리고 나머지로써 한 화자의 말차례 내에서 출현한 예는 다음과 같다.

- (6) 一, 是嗎。/, 一  
 → 竇文濤: 哇, 太火了, 是嗎, 狗仔隊, …跟到紐約去了。

이에 대한 분석 자료 내 집계결과는 아래와 같다.



	출현위치				합계
	2인		1인		
	—./。是嗎#	#是嗎。/。—	—./。#是嗎# —	—。是嗎。/。—	
빈도	90.0	6.0	50.0	5.0	151
%	59.6	4.0	33.1	3.3	100

표2. '是嗎'의 출현위치

표2에서, '是嗎'는 90회, 59.6%로써 '—./。是嗎#'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고, 그 다음으로 50회, 33.1%로써 '—./。#是嗎# —'에서 출현하였다. 그리고 '#是嗎。/。—'는 6회, 4%, '—。是嗎。/。—'는 5회, 3.3% 순이다. 상기 결과는 '是嗎'가 여전히 '—./。是嗎#' 구조 속에서 고빈도로 출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그 다음 빈도를 보이는 '—./。#是嗎# —' 구조이다. 이는 '是嗎'가 문장 틀, 즉, '—./。是嗎#'의 구조 속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독립된 단위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만큼 그것이 소급되는 범위도 넓어졌을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是嗎#'와 상반된 구조를 가진 '#是嗎。/。—'나 '—./。#是嗎# —'와 상반된 '—。是嗎。/。—'처럼 타인을 지향해야 할 '의문'이 1인의 서술 내에 위치하면서 '의문'을 지향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점도 '是嗎'의 다변화된 양상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是嗎'에 대한 상대화자의 반응 양상을 살펴보자.

	반응어												없음	합계
	있음													
	是	不是	對	不對	嗯	啊	沒有	哪裡	當然	동어반복	기타	합계		
빈도	6	7	36	0	4	3	7	1	3	5	24	96	55	151
백분율	4.0	4.6	23.8	0.0	2.7	2.0	4.6	0.7	2.0	3.3	15.9	63.6	36.4	100

표3. '是嗎'에 대한 반응 양상

표3에서, '是嗎'에 대한 반응 양상으로는 유반응이 96회, 63.6%, 무반응이 55회, 36.4%로 나타났다. 단일 항목별로 비교해보면, 무반응이 55회, 36.4%, 유반응 중 '對'가 36회, 23.8%, '기타'가 24회, 15.9% 비율을 보였다. 이는, 유반응 대 무반응 간 대비로 보면 양자가 약 6:4 비율을 보이지만 개별 항목별로는 보면 무반응의 비율이 유반응의 다른 어떤 개별 항목보다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같은 현상은 ‘是嗎’의 기능 분석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是嗎’의 3분의 1 이상에 반응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전형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是嗎’의 ‘확인 요구’ 기능이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때문이다. 이 같은 해석은, 무반응을 표2의 출현위치와 연계시켰을 때 좀 더 설득력을 갖는다.

	무반응과의 관계				
	2인			1인	합계
	—./。是嗎#	#是嗎。/。—	—./。#是嗎# —	—。是嗎。/。—	
빈도	27	6	17	5	55
%	49.1	10.9	30.9	9.1	100.0

표4. ‘是嗎’의 출현위치와 무반응 간 분포

앞서 표2에 대한 분석에서, ‘是嗎’가 ‘—./。是嗎#’에서 출현하는 비율은 약 60%에 달했었다. 이 비율에만 비중을 둘 경우 ‘是嗎’에는 여전히 고정된 ‘확인 요청’ 기능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출현위치를 무반응과 연계시켜보면, ‘—./。是嗎#’에서 출현하는 ‘是嗎’ 역시 높은 비율로 반응이 부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是嗎’가 ‘—./。是嗎#’에서 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확인 요청’의 기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만큼 높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3순위의 ‘기타’와 같이, ‘是/不是’ ‘對/不對’ 등 기존 관념상의 대응으로부터 벗어나, 상대의 전제를 부정하거나 질책을 하는 등(예7, 8 참고) ‘是嗎’를 직접 정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是嗎’의 기능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여러 모습으로 다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일러준다.

- (7) 20160411, 是嗎28
  - 竇文濤: [很厲害]。誒, 你在那裡待過很長時間, 是嗎?
  - 黃真真: 啊:, 我沒有待過, 但是我跟韓國, ..那個電影公司啊,
- (8) 20160422, 是嗎42
  - 竇文濤: ..... ...想不到, 這個:, ..著名的《環球時報》,
  - 許子東: 嗯, =
  - 竇文濤: =發表雄文, ...炮轟鳳姐。

- 許子東: 是嗎?
- 竇文濤: 說, 你這不做功課的,

	유반응 내 반응어 분포											
	是	不是	對	不對	嗯	啊	沒有	哪裡	當然	동어반복	기타	합계
빈도	6	7	36	0	4	3	7	1	3	5	24	96
백분율	6.3	7.3	37.5	0.0	4.2	3.1	7.3	1.0	3.1	5.2	25.0	100

표5. 유반응 내 반응어 항목별 분포

유반응 결과 내의 항목 간 비교를 살펴보면 '對'가 36회, 37.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예(7), (8)과 같은 '기타'가 24회, 25%로서 그 뒤를 잇는다. 하지만 '是', '不是', '不對', '沒有', '當然' 등은 모두 7회 이하의 빈도를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다양한 양상은 떠나, '對'를 제외하고, 어느 하나가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동어반복'과 '기타' 항목을 제외한 언어 항목만을 두고 볼 때 '是嗎'에 대한 반응어가 긍정 대 부정 간 52:15을 보임으로써 긍정의 경향이 부정의 경향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shi-a/ma/ba의 대한 반응의 대부분이 긍정적"이란 Chang(2006, p. 46)의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동시에 이는 일상의 '是' 부가의문문 응답 중 과반 이상이 긍정을 지향했던 이지원(2014, p. 88)을 제도담화에서 실증적으로 지지하기도 한다.

## 2) '是嗎'의 사회변인별 분포

다음으로, '是嗎'와 사회적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사회자는 남성이고 게스트는 경우에 따라 남성으로만 구성될 때도 있고 남성과 여성으로 함께 구성될 때도 있다. 이에 준하여, '사회자 — 게스트'를 먼저 구분하고 그 아래 '남성 — 여성' 간 범주를 나누었다. 아래는 '是嗎'에 대한 역할별, 성별 사용 집계값이다.

	역할과 성비			
	사회자	게스트		
	남	합계	남	여
참여 인원	1	28	18	10
'是嗎'빈도	116	35	17	18
%	76.8	23.2	11.3	11.9

표6. '是嗎와 사회 변인 간 관계

먼저 역할별로 보면, 116회, 76.8%를 보인 사회자가 35회, 23.2%의 게스트보다 큰 차로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자가 1명, 게스트가 총 28명이란 점을 감안할 때 '是嗎' 사용의 역할 간 비대칭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Hu(2002, p. 50)는 '是嗎'의 사용이 "선행된 발화 중에서 중요하거나 불명료한 부분에 대해 어느 한 명만이 반복하며 재확인을 요구하는 제도 담화 맥락에 국한해 있다"고 하였는데, 본고의 집계 결과 역시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하지만 본고는, 이에 더 나아가, '是嗎'에 대한 사회자의 사용이 재확인을 요구하는 데에 그치지만은 않는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을 주도하는 사회자는 게스트의 발화를 독려하며 주제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도 '是嗎'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자의 이 같은 사용 양상은 특히 '말을 마쳤다'고 표시한 청자의 끝맺음 억양 뒤에 자주 보인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9) 20160623, 是嗎116

曹星原: 那麼, 你說是, ...西方的勝利, 或者不是西方的勝利, 我倒看出感-感覺到, ...事實上, 這個:, ...狗的這個問題是一種, ..一種宣洩。...借這個說別的事情。

→ 竇文濤: ... (0.8)是嗎?

曹星原: 我覺得。一種, 一種, ..剛剛您說了普世價值啊,

예(9)에서의 주제는 개고기 문화이다. 여기서 曹星原은 소를 대하는 서양인들의 모습을 논하면서 그들이 개고기문화를 논하는 것은 일종의 '화풀이(宣洩)'라고 해석하고 끝맺음 억양으로써 말을 마친다. 그 후 약 1초 가까이, 선행화자도 말을 잊지 않고 기타 참여자 중에서도 말차례를 주동해서 있는 사람이 없자 竇文濤가 '是嗎'로써 曹星原에게 다시 말을 이어 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3)</sup> 이

같은 현상은 화자가 어떤 맥락과 역할에 기초하여 말을 하는지에 따라 언어사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성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자. 앞서 표6에서, '是嗎' 사용의 성별 백분율은 11.3%, 11.9%로서 남성과 여성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는 '是嗎'의 사용 빈도만을 중심에 놓고 본 비율로서 참여인원과 발화빈도 등을 연계시킬 경우 상이한 집계값을 얻을 수 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사회자	게스트		
	남성	합계	남성	여성
참여인원	1	28	18	10
발화빈도	2751	4432	3076	1356
1인당평균 발화빈도	2751	158	171	136
발화빈도 대비 是嗎빈도	23.7	126.6	180.9	75.3

표7. '是嗎'의 성별 사용 양상

표7에서, 남성의 총 발화빈도는 3076회, 여성의 총 발화빈도는 1356회이다. 이를 각 성별 인원수로 나누면 참여자 1인당 평균 발화빈도는 남성이 171회, 여성이 136회로 집계된다. 그리고 총 발화빈도를 표6 상의 '是嗎' 빈도값으로 나누면 남성은 평균 약 180번의 발화 시마다 1회, 여성은 평균 약 75번의 발화 시마다 1회 빈도로 '是嗎'를 사용한다는, 발화빈도 대비 '是嗎'의 사용빈도를 얻을 수 있다.

이로써 얻은 빈도값은 표6에서의 비등했던 비율과 그 양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은 평균 발화 빈도가 171회, 발화빈도 대비 '是嗎'의 사용빈도가 180회 당 1회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남성 게스트라면 프로그램 1회 출연 시 '是嗎'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었음을 가리킨다. 반면에 여성은 평균 발화 빈도가 136회, 발화빈도 대비 '是嗎'의 사용빈도가 75회 당 1회이다. 이는 여성 게스트의 경우 프로그램 출연 시마다 평균 약 1.8회 빈도로 '是嗎'를 사용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것이 정보에 대한 '확인 요구'로든지 그 외 기능으로든지 여성 화자가 상호작용 과정에서 '是嗎'를 사용하는 빈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보여준다.

3) 말차례 갖기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Sacks 등(1974)을 참고할 수 있다.

## 4. 질적분석

### 1) ‘是嗎’의 출현형식

‘是嗎’의 출현 형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절 — 진술문과 그 뒤를 잇는 ‘是嗎’ — 로 구성된다(Chen 2000, p. 95).

[                                    ]P , #[                                    ]Q  
 [ 你要去臺北 ]P , #[ 是嗎 / 是不是 ]Q                    (\* '#' 는 절 경계 표시)

여기서 ‘是嗎’는 선행절의 명제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구한다. 아래 예를 보자.

- (10) 20160616, 是嗎112  
 梁文道: [2 哇喔 2], 我[3 覺得很懸啊. 〈x x〉 3]-  
 → 竇文濤:                    [3 這傢伙, 聽說路都 3]塌了, 是嗎?  
 梁文道: 啊?  
 竇文濤: 長跑的, 那個:, ..路上[1 的橋 1].  
 梁文道:                    [1 哦, 路 1]又[2 塌了, ...然後,  
                                   海灘的水的 2],

예(10)에서의 “這傢伙, 聽說路都塌了, 是嗎?”는 Chen(2000, p. 95)에 따라 ‘[聽說路都塌了]P, #[是嗎]Q’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를 질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요구 기능이 없던 “聽說路都塌了”에 ‘是嗎’가 부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是嗎’로써 발생된 질문으로서의 말힘은, 인접쌍에 기초한 행위적 관점에서 (Schegloff & Sacks 1973), 청자에게 대답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청자 梁文道는 “啊?”로써 대답에 응하기 위한 상세 정보를 요구하고 竇文濤로부터 상응하는 정보 — “長跑的, 那個:, ..路上的橋” — 를 받고서야 “聽說路都塌了, 是嗎?”에 대한 대답 — “哦, 路又塌了” — 과 부가 정보 — ...然後, 海灘的水的..... — 를 제공해주었다. 따라서 ‘是嗎’에 의한 행위구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질문 — 대답’ 행위쌍을 구성한다.

- ① A: [\_\_\_\_\_, 是嗎?] 질문
- B: [\_\_\_\_\_。] 대답

그리고 그로 인해, '是嗎'는 질문의 수행동사 '問'이나 의견을 포하는 '覺得'과도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 (11) 20160526, 是嗎84
- 竇文濤: ... (1.5) 哎, 我問你, ..他們說這個:, 女人的愛情里, 一定要有崇拜, 你覺得是嗎?
- 俞飛鴻: 看年齡段嘔, 我覺得小姑娘是, 小姑娘的時候。

하지만 '是嗎'는 상기와 같은 질문의 말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형식 구조 — [\_\_\_\_], [是嗎?] — 에 위치해 있는 탓에 청자가 선행절 내용을 인지한 시점부터 보인 반응과 자주 겹친다.

- (12) 20160616, 是嗎113
- 許子東: [這個, 把這個, ...那麼力量, 那麼強的] 葡萄牙, ...給踢平了。
- 竇文濤: 我看C羅氣瘋了, [1 是嗎 1]。
- 許子東: [1 啊:: 1], 32萬[2 人 2]口啊,

예(12)의 맥락은 축구경기에서 아일랜드가 포르투갈에 승리한 사건이다. 화자 竇文濤는 '(그래서) 호날두가 몹시 화났을 것'이라는 데서 '是嗎'를 부가했다. 하지만 그에 앞선 선행절 내용 — “我看C羅氣瘋了” — 에 許子東이 곧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是嗎'와 “啊::” 간에 말걸침이 발생하였다. 이는, 상호작용 측면에서 竇文濤와 許子東 간의 대화가 매우 협력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是嗎'의 관점에서 보면 그에 대한 직접 반응어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점에서 '是嗎'의 또 다른 기능 획득에 동기를 부여한다고도 볼 수 있다.

## 2) '是嗎'의 담화기능

### (1) 명제 내용에 대한 확인 요구

상기 논의와 같이, '是嗎'는 선행절의 명제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구한다.

(13) 20160715. 是嗎137

竇文濤: 你知道爲什麼你一回香港, ... [就, ... 遭] 雷劈嗎?

傅曉田: [啊-, .. 啊],

竇文濤: @@

→ 傅曉田: 因爲我沒有找你, 是嗎? @@

竇文濤: 不是, 因爲你趁我不在北京期間,

예(13)은 (발화 당시) 근래 있었던 낙뢰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중이다. 竇文濤가 '홍콩에 왜 벼락이 쳤는지 이능가'를 묻자 傅曉田이 竇文濤의 "爲什麼"에 대응하여 '당신을 찾지 않아서가 아닌지' '是嗎'로써 확인을 요구한다. 예(13)은 예(1)과 같이 '是嗎'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예로서, "你知道爲什麼你一回香港就遭雷劈嗎?"에 대응된 명제내용 "我沒有找你"와 '是嗎', 그리고 그에 대응된 竇文濤의 "不是"가 인접쌍 — 'A: [\_\_\_\_, 是嗎?]'<sub>질문</sub> — B: [\_\_\_\_.]<sub>대답</sub> — 의 행위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 (2) 담화 내용에 대한 확인 요구

확인을 요구하는 대상은 예(13)과 같이 간단한 명제에 국한할 수도 있으나 참여자 간에 나는 대화 내용 전체일 수도 있다. 이 때 '是嗎'의 선행절은, 예(13)의 그것과 달리, 앞서 언급된 담화의 종결적 성격을 띤다. 그로 인해, 담화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是嗎'는 '所以(說)' 등과 같이 종결을 표시하는 말과 호응을 이루기도 한다.

(14) 20160713. 是嗎134

趙心樹: 別人對你說垃圾話, 沒用, 你對別人說垃圾話有用, ... 你就贏了。



竇文濤: 啊::。誒, 那-, 這-, 你比如說, 現在美國, 這個航空母艦  
戰鬥群:, ...在旁邊呆[著],  
趙心樹: [也]就是一個垃圾動作嘛。他也-, 他  
也不能-, 都不可能開炮, ...不可能做什麼。你不亂方寸,  
他有什麼意義呀。  
竇文濤: 那我們演習呢,  
趙心樹: 我覺[1 得 1],  
竇文濤: [1 也是 1],  
趙心樹: [2 我覺 2]得,  
竇文濤: [2 也是 2],  
趙心樹: [3 也我我 3]-,  
竇文濤: [3 也是垃 3]圾話。  
趙心樹: ..也我們垃圾話, 垃圾回去看, ..看誰亂了方寸嘛。  
→ 竇文濤: 啊哈::。...所以說::, 這個::, ..高層::, 大家心裡::, 都  
門兒清, ..是嗎?  
趙心樹: 誒, 對, 才對。

예(14)는 “垃圾話”, “垃圾動作”처럼 ‘불필요한 또는 안 해도 될(垃圾)’ 말이나 행동에 대한 대화의 일부이다. 예(14)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화자는 趙心樹로서 “垃圾話”나 “垃圾動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의하거나 지적한다. 그리고 竇文濤와의 여러 차례의 말걸침 끝에, 중미 양국 간에 ‘쓸데없는 말과 행동들로 누가 불안해 하는지를 보는 것 같다’며 말을 맺는다. 그러자 竇文濤가 ‘그러니 고위층들은 심리적으로 정통하다 할 수 있다’며 그간의 대화 내용을 매듭짓고, 그렇게 종결짓는 것이 적절한지 趙心樹에게 확인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趙心樹는 “對, 才對”의 강한 어조로써 반응을 제공한다. 예(14)는 예(13)과 구조와 기능 면에서 기본적으로 큰 차이를 갖지 않는다. 하지만 ‘是嗎’로써 요구되는 확인 대상이 단일 명제에서 선행 담화 전체로 확대됨으로써 선행절이 소급하는 지시 범위는 예(13)의 그것과 차이를 갖는다.

### (3) 청자로부터의 동의 요구

‘是嗎’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요구한다. 확인을 요구한다는 것은, 바뀐서 말하면,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사건, 의견, 판단 등에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是嗎’는 종종 불확실함에 관하여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즉, 여전히 ‘A: [\_\_\_\_, 是嗎?]’<sup>질문</sup> — B: [\_\_\_\_.]<sup>대답</sup>의 구조에 위치하면서도, 불확실함에 대한 확인 요구가 아닌, 확실함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다. 아래 예를 보자.

(15) 20160519, 是嗎70

→ 竇文濤: 咱們這個, ..周孝正老師啊, 這個:, ..講話呀, 非常的硬, 啊, 但是你細一聽呢, 有他的理兒, 但是他這個理兒啊, ..又好像比較絕對。比如說, ..昨天..給咱們, ..講這個, 說您的觀點, 就是全國統一一張試卷, ...是嗎?

周孝正: 是。

竇文濤: [這可行嗎]?

예(15)는 프로그램의 인트로 부분이다. 사회자 竇文濤는 누가 게스트로 초대되었는지 어떤 주제로 논의를 했었거나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런 다음, 竇文濤는 ‘是嗎’로써 끝을 맺으며 周孝正에게 말차례를 넘겨주는데 여기서의 ‘是嗎’는 불확실함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근거로서, ‘是嗎’가 출현하기까지의 선행절들을 보면, 이미 어제 관련 논의를 했었고(“昨天..給咱們, ..講這個, 說您的觀點”) 周孝正 의견에 대한 화자의 판단(“非常的硬”, “有理兒”, “比較絕對”)도 이미 내려져 있다. 그러므로 상기 [\_\_\_\_, 是嗎?] 구조에서의 ‘是嗎’는 맥락상 ‘~했는데 맞나요?’가 아니라 ‘~했는데 맞죠?’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기 수행된 사건과 그에 내려진 판단에 동의를 구하는 데 ‘是嗎’가 사용되었다고 본다. 이는 상기 ‘是嗎’를 ‘是吧’로 대체하더라도 또는 대체할 때 (더욱)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데서 지지를 받는다.

(15) ‘..昨天..給咱們, ..講這個, 說您的觀點, 就是全國統一一張試卷, ...是吧?’

아래 또 다른 예를 보자.

- (16) 20160614. 是嗎104. 105  
 竇文濤: 咱們可以看看這個..照片, 啊. 呃:, 這就是, ...這廝..一  
 下, [1 名 1]揚全球,  
 梁文道: [1 嗯 1].  
 許子東: [1 嗯 1].  
 → 竇文濤: 是嗎.  
 梁文道: um-uhm.  
 竇文濤: 這傢伙, 出鏡率最高的, ..就這廝了, 打扮的這-, 這一款有  
 點像意大利小流氓, 是嗎.

예(16)은 테러와 관련한 논의의 서두로서, “咱們可以看看這個..照片”으로부터 알 수 있듯, 대화 참여자들이 모두 자료 화면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 속에서 竇文濤는 사진 속 인물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말 뒤로 ‘是嗎’를 부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是嗎’와 불확실함 간의 연관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이미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테러리스트 자료를 참여자들이 공유 중이고 비속어(廝: 놈)로써 사진 속 인물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공유된 지식과 화자의 감정에 기타 참여자들이 동의하기를 ‘是嗎’로써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Hu(2002)는 ‘是嗎’와 ‘是吧’ 간의 경계를 “화자가 선행절의 진실성에 대해 견지하는 확실성의 차(p. 53)”로 두고, ‘是嗎’는 “청자가 거의 또는 전혀 몰랐던 정보에 대해 재확인을 요구(p. 53)”할 때 부가되는 반면 ‘是吧’는 “화자의 의견에 대해 청자의 동의/확인을 요구(p. 54)”할 때 부가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고의 관찰 결과는, ‘是嗎’와 ‘是吧’에 대한 상기 구분 경계가 맥락에 따른 실제 사용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모호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sup>4)</sup>

4) 상기 예문에서 보인 ‘嗎’와 ‘吧’의 기능경계 간 점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어법화 과정에 있는 ‘嗎’가 기능의 확장을 보이며 (1) 물음에 대한 반응이 긍정일지 부정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嗎’(全疑而問), (2) 반응의 긍·부정에 대해 어느 정도 경향성을 갖고 사용되는 ‘嗎’(半疑而問), (3) 반응이 긍정일지 부정일지를 이미 알고 사용되는 ‘嗎’(無疑而問)로 사용된다는, 楊永龍(2011, p. 394)의 논의는 양자 간 점점 현상을 관찰하는 데 유의미한 참고점을 제공한다.

(4) 청자 의견의 인정과 이견의 완충

지금까지의 ‘是嗎’는 주로 ‘A: [\_\_\_\_, 是嗎?] 질문 — B: [\_\_\_\_.] 대답’ 구조에 출현하여 청자의 반응을 기대했다. 하지만 아래의 ‘是嗎’는 그것의 위치가 [是嗎, \_\_\_\_]로 전이되어 있다. 이에 그것이 정향하는 바도 후행 화자의 반응이 아닌 선행 화자의 담화로 전도되고, 그것의 기능도 상기 구조에서와는 다르게 발휘된다.

- ② A: [\_\_\_\_.] 진술  
 B: [是嗎, \_\_\_\_] 진술/질문

아래 예를 보자.

(17) 20160404. 是嗎3

- 周軼君: 我覺得, 暢通看行道: -多-行多少公里吧。我覺得再往前也  
 得卡住, [而且它的那個卡的-]  
 → 許子東: [是嗎, 但目前來說]-  
 周軼君: 而且它的卡的方式, 可能是翻車。

예(17)은 국제 정치를 중심으로 논하는 과정에서 周軼君과 許子東 간에 대립을 보이는 부분이다. 예(17)의 앞선 맥락에서, ‘중앙집권제 국가든지 지방분권제 국가든지 모두 정채되어 있다’는 사회자 발제(發題)에 대해 許子東이 ‘중앙집권제는 아주 잘 나간다고 하였다. 하지만 周軼君은 예(17)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얼마 못 갈 것’이라며 許子東의 주장에 부동의하자 許子東이 ‘是嗎’로써 반론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是嗎’는 ‘구조적으로’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진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말차례 쟁취 도구로서 사용되고, 무엇보다도, 이견 간 완충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我覺得”를 두 번이나 사용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周軼君에 대해 許子東이 선행화자와 말을 겹쳐가며 ‘是嗎’ 없이 “但目前來說”를 발화했다고 가정해 보자.

- (17)' 周軼君:我覺得, 暢通看行道: -多-行多少公里吧。我覺得再往前也  
 得卡住, [而且它的那個卡的-]  
 → 許子東: [ o , 但目前來說]-

이 같은 경우, 許子東은 周軼君의 의견을 곧바로 논박함으로써 상대의 긍정적 체면(positive face, Brown & Levinson 1987)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예(17)의 '是嗎'는 상대 의견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 요구와 함께 상대 이견에 대한 의견 전개의 여유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또 한 예를 보자.

- (18) 20160411, 是嗎30  
 竇文濤: [3 韓 3]-, [4 韓星 4]-,  
 黃真真: [4 三個 4]人。  
 竇文濤: [5 呃韓星 5]-  
 馬家輝: [5 可是她 5]的:, ..造型不像韓星啊。  
 竇文濤: [6 行了 6],  
 黃真真: [6 我知 6]道了。我-我改-[7 改了 7]。  
 竇文濤: [7 現在韓 7]國那些女團穿的裙  
 子, 也就這樣了。  
 → 馬家輝: 是嗎, 她比較像日-, ..日本的嘛, 我[1 感覺 1],

예(18)에서는 참여자들이 黃真真的 패션스타일을 논하는 중이다. 竇文濤은 그녀의 스타일이 한국적이라고 주장하지만 馬家輝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造型不像韓星"). 하지만 竇文濤가 '한국에서도 이렇게들 입는다'며 재차 주장하고 馬家輝도 그녀의 스타일이 오히려 '일본 스타일과 닮았다'며 재차 부동의 하고 있다. 이견의 대립이 두 번에 걸쳐 연이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馬家輝은 '是嗎'로써 말 차례를 가져와 竇文濤와의 이견을 다시 한 번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是嗎'는 상대 의견에 대한 형식적 확인 요구에 사용되어 이견 간 충돌을 완화함으로써 상대의 체면을 보호하고 자신의 의견이 보다 부드럽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맥락 조성에 기여한다.

(5) 발화 지속과 정보의 구체화 요구

앞서 본 ‘是嗎’의 기능이 기본적으로는 ‘A: [\_\_\_\_, 是嗎?] 질문 — B: [\_\_\_\_.] 대답’이나 ‘A: [\_\_\_\_.] 진술 — B: [是嗎, \_\_\_\_] 진술/질문’의 인접쌍을 가정한 구조 속에서 수행되었다면, 아래의 ‘是嗎’는 선행화자의 주도적인 발화 과정 속에서 출현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 때 ‘是嗎’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출현하며 경우에 따라 ‘哦’, ‘啊’ 등의 어기사가 동반되기도 한다. 이는 앞서 본 예(9)와 맥을 같이 하는데, ‘是嗎’의 상당수가 사회자로부터 발화되며 청자의 발화를 지속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정보 제시가 지속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어는 수의적이다. 청자는 화자의 ‘是嗎’에 ‘對’ 등의 반응어으로써 짧게 호응하기도 하고 반응어 없이 자신의 발화를 지속해서 이어갈 때도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19) 20160720. 是嗎142

葉海林: 埃爾多安的伊斯蘭教統治的, 最後一次努力, [這]個說法從根本上來說,

竇文濤: [對],

葉海林: 就是錯誤的。

→ 竇文濤: 哦, 是嗎?

葉海林: 因為, ...發動政變的是居蘭分子, ...不是世俗主義者。他們比ka-, ...比埃爾多安, ...還極端呢, ... (0.5)這是第一個, 就是, ...實際上是埃爾多安...(0.7)代表的,

예(19)는 터키의 쿠데타를 주제로 하고 있다. 주터키중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葉海林이 현 대통령인 에르도안(埃爾多安)의 이슬람 정책이 잘못됐다(“就是錯誤的”)는 견해를 밝히자 竇文濤가 ‘是嗎’로써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葉海林은 ‘是嗎’에 대한 반응어 제시 없이 곧바로 “因爲”로써 자신 견해에 대한 이유를 진술하기 시작한다.

(20) 20160627. 是嗎118

潘采夫: ..我不知道上海迪士尼是, ..比如說, 上海出多少, 他們出多少, ..但是看, ...香港迪士尼的資料, ...香港政府出百分之九十。

→ 竇文濤: ...是嗎?

潘采夫: 對。就是, 你看那個新聞裡邊說, 爲什麼香港迪士尼一直在虧錢的原因就是, ...香港政府, ...出了很多錢, 包括銀行貸款。

예(20)에서는 상해의 디즈니랜드 개장이 논의의 주제이다. 관련하여, 潘采夫가 홍콩 디즈니랜드와 미국 디즈니 본사 간의 지출과 수익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竇文濤는 '是嗎'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에 관해 지속적인 제공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潘采夫는 '對'로써 간단히 반응한 뒤 "就是"로써 홍콩정부 출자에 관한 진술의 정보 출처("新聞"), 90% 정부 출자의 재원 출처("銀行貸款")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지속해서 진술하고 있다.

예(19)와 (20)에서 보이는 공통점 중의 하나는 '是嗎'의 소거가능성이다. 즉, '是嗎' 또는 '是嗎 — 對'를 삭제해도 대화의 진행이나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삭제될 경우, 답화는 아래와 같이 온전한 1인 화자의 진술이 된다.

(19) 葉海林: [埃爾多安的伊斯蘭教統治的, 最後一次努力, [這]個說法從根本上來說, 就是錯誤的。] — [因爲, ...發動政變的是居蘭分子, ...不是世俗主義者。他們比ka-, ...比埃爾多安, ...還極端呢, ...(0.5)這是第一個, 就是, ...實際上是埃爾多安...(0.7)代表的, ]

(20) 潘采夫: [...我不知道上海迪士尼是, ...比如說, 上海出多少, 他們出多少, ...但是看, ...香港迪士尼的資料, ...香港政府出百分之九十。] — [就是, 你看那個新聞裡邊說, 爲什麼香港迪士尼一直在虧錢的原因就是, ...香港政府, ...出了很多錢, 包括銀行貸款, ]

두 번째 공통점으로, '是嗎' 뒤로 이어지는 발화가 '因爲', '就是' 등으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는 '因爲'와 '就是'가 모두 끝맺음 억양("。") 뒤에서 앞서 언급된 내용을 부연할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Wang 1999, pp. 73~75; Biq 2001, p. 60), 대화적 요구에 부응해 주요한 의견이나 정보를 먼저 제시하고 '是嗎'를 촉매 삼아 미진했던 내용을 구체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공통점으로서, 예(19), (20)은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행위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행위구조적 측면에서 '是嗎'의 출현위치를 기능과 연계시켜 살펴보자. 아래는 예(19), (20)의 행위구조이다.

- ③ A: [ \_\_\_\_\_ ] 진술1  
 B: [ 是嗎? ] 是嗎  
 A: [(對) \_\_\_\_\_ ] 진술2

그리고 아래는, 앞서 제시된 기능들의 행위 구조이다.

- ① A: [ \_\_\_\_\_, 是嗎? ] 질문  
 B: [ \_\_\_\_\_ ] 대답
- ② A: [ \_\_\_\_\_ ] 진술  
 B: [ 是嗎, \_\_\_\_\_ ] 진술/질문

①에서는 확인이 요구되는 대상의 제시를 '是嗎' 화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담의 해소는 청자가 제공한다. ②에서는 확인 대상의 제시를 청자가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의 해소는 '是嗎' 화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③에서는 확인 대상의 제시와 해소를 모두 청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 중에서 ③은, 부담의 해소란 관점에서, 화자 1인에 의한 ①의 [ \_\_\_\_\_, 是嗎?]를 청자와 화자가 [ \_\_\_\_\_, ]와 [是嗎?]로 나누어 담당한 구조로 볼 수 있다.

- ① S: [ \_\_\_\_\_, 是嗎? ] 질문  
 H: [ \_\_\_\_\_ ] 대답
- ①' S: [ \_\_\_\_\_, 是嗎? ] 질문 → H( \_\_\_\_\_, )진술 S(是嗎?)
- ③ H: [ \_\_\_\_\_ ] 진술1  
 S: [ 是嗎? ] 是嗎  
 H: [(對) \_\_\_\_\_ ] 진술2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역할의 크기 면에서, ③에서는 ①



보다 청자의 역할이 커지고 그만큼 화자의 역할이 작아진다. 하지만 부담의 해소 면에서 보면, 화자는 '是嗎'에 선행하는 요구내용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질문에 따른 해소의 유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청자도, 비록 해소의 부담을 소거시킬 수는 없지만, 확보된 말차례에 따라 안정적인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해소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 같은 점이 1인의 '[\_\_\_\_\_, 是嗎?]'를 2인의 '[\_\_\_\_\_, ][是嗎?]'로 분화시키고, 또 그 속에서 '是嗎'도 독립된 단위로서 대인적 측면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본다. 특히 상기 구조에서의 '是嗎'는, 마치 영어의 'uh huh'와 같이, 화자가 그것으로써 말차례를 가지려 시도하기보다 청자로 하여금 지속해서 말을 잇도록 하는 지속권유어(continuer)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Schegloff 1982, p. 81). 또한 상기 구조의 '是嗎'는 다음과 같은 기능에 기여하기도 한다.

(6) 청자 의견의 조정 및 조율

상기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是嗎'는, 수의성과 더불어, 상호작용 과정에서 청자의 의견을 조정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21) 20160428. 是嗎49  
 周軼君: 都是在現任女王這個時候啊。  
 竇文濤: 對, 啊?  
 周軼君: 就是, ..就是現任女王丟掉的最多的, ...國家。  
 → 竇文濤: 是嗎?  
 馬家輝: [有些是耶, 有些]是耶。  
 周軼君: [(X 反正她丟 X)掉的], 對。而[從她爸]開始。

예(21)은 국제관계를 주제로 한 대화의 한 부분이다. 본 대화에 앞서, 사회자 竇文濤가 과거 대영제국에서 떨어져 나간 국가들('丟掉的國家')의 분포도를 보여주자 周軼君가, 예(21)에서, '현 여왕체제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丟掉的最多的") 나갔다'고 한다. 그에 이어 竇文濤가 '是嗎'를 사용하고 있는데, '是嗎'의 출현 뒤로

는, 馬家輝가 먼저 ‘일부가 그렇다(“有些是”)'고 수정을 시도하고 그에 따라 周軼君도 ‘현 여왕이 했지만 시작은 그녀의 아버지 때부터다’라며 자신의 확인 범위를 일부 수정하고 있다. ‘是嗎’을 전후하여 보면, [最多] — [‘是嗎’] — [有些] — [反正]으로 발언의 범위와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예를 보자.

(22) 20160616. 是嗎110

竇文濤: 談, 我覺得, 歐洲真是淪陷了, 好像在種種原因之下, 歐洲現在亂了。

許子東: 沒有, 沒有, 沒有。

→ 竇文濤: 是嗎。

許子東: 你你你那, ..這還是少數, 大[部分還是一種:],

梁文道: [特別時期, 非常時期]嘛。

예(22)에서 화자들은 훌리건(hooligan)에 대해 논하고 있다. 러시아, 잉글랜드 등지의 열광적인 축구팬들로 인해 유럽이 위협해졌다(“歐洲真是淪陷”)는 竇文濤의 말에 許子東이 세 번의 “沒有”로써 ‘절대 아니’라며 확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竇文濤가 ‘是嗎’를 사용하고 있는데, ‘是嗎’ 뒤로, 許子東은 ‘소수만 그렇고 대부분은 아니’라며 ‘절대 아니’라던 기존 의견에서 한 발 물러선다. 이에 더해 梁文道도 ‘지금은 시늬이지 않은가’라며 許子東의 수정된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이 역시 ‘是嗎’를 전후해서 보면, [沒有] — [‘是嗎’] — [少數 vs. 大部分] — [特別, 非常]으로 범위와 정도의 조정이 발견된다.

이처럼 ‘是嗎’는, 사회자 관점에서는 청자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데, 그리고 게스트 관점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확인 대상의 제시와 해소가 모두 청자에게 부담 지워지는 ‘A:[\_\_\_\_.]<sup>진술1</sup> — B:[是嗎?]<sub>是嗎</sub> — A:[\_\_\_\_.]<sup>진술2</sup>’의 구조 속에서, 화자가 확인에 대해 재고할 여지를 청자에게 제공하고 청자도 그에 대응하여 ‘是 vs. 非’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자 했던 결과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7) 주의의 환기

'是嗎'는 주요하게 2~3인의 가정된 대화 구조 속에서 출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응에 대한 기대 없이 화자 1인의 진술 과정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아래 예를 보자.

(23) 20160513, 是嗎61

竹幼婷: .....然後, 我就跟他講, 不要再哭了, 有人在照相, 我說  
很丟臉。[然後呢],  
→ 竇文濤: [哇, 太]火了, 是嗎, 狗仔隊, ..跟到紐約[去了]。  
竹幼婷: [沒有],  
沒有。就, ..他就說, ...這是我請的攝影師耶。

예(23)은 竹幼婷의 연애 스토리에 대한 대화의 일부이다. 竹幼婷가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칭혼을 받았는데, 정작 칭혼을 한 남자친구가 울었고 그 모습을 누군가(사실은 남자친구가 고용한)가 계속 찍고 있었다고 언급한다. 이에 대해, '파파라치("狗仔隊")가 뉴욕까지 따라가다니 대단하다'고 竇文濤가 언급하는 과정에서 '是嗎'가 사용되고 있다. 감탄("太火了")과 진술("狗仔隊..跟到紐約去了")이 섞여 있는 과정에서 기타 참여자들이 개입될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고(역으로, 화자는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고), 소거되어도 의미전달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23)의 '是嗎'는 참여자들의 주의를 소집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4) 20160714, 是嗎136

馬家輝: .....結果呢, 再有人附和嘛, ..好多人就說, ..哎呀, 這一次精采啊, ..我不管, ..趕快就..完成我的工作, ..帶著我的...三::, sa:, 三, ...三明治, 麵包, 啤酒[去機機機]-,  
竇文濤: [哦,  
機場看]熱鬧。=  
→ 馬家輝: =看熱鬧。...(0.7)這有點像什麼, 啊, 比如說文濤, ...被人家丟石頭, ...我在旁邊看, ...你期待我跟你, ..替你講句公道話, 是嗎, 對不起, ..我講的是什麼。哇::, 你看那個石頭多炫啊, 多-..酷啊, 那個石頭丟的好啊, 那個角度好。

而且網路世界, 這個)-

예(24)는 트위터에 잘못 올린 문구 하나로 빚어진 참극에 대해 馬家輝가 진술한 내용의 일부이다. ‘한 청년 여성이 아프리카행 비행기 탑승 전에 에이즈에 관한 멸시적 문구를 트위터에 남겼는데, 순간적으로 전 세계 팔로잉되면서 그녀가 착륙하기도 전에 해당 공항에 시위대와 구경꾼들이 운집했다’는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馬家輝가 ‘是嗎’를 사용하고 있다. 馬家輝는 당시 상황에 몰입감을 주고자 가정(比如說)과 직시어를 이용한 감정 이입(“我在旁邊看, ...你期待我跟你”) 등을 시도한 뒤 ‘네가 그 같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내가 옆에서 도와주길 바라지 않겠나’라고 하며 ‘是嗎’를 사용하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對不起, ..我講的是什麼。”로는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다시 그 뒤로 이어지는 “哇::, 你看那個石頭多炫啊, 多...酷啊,”로는 현지인의 입장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입(移入)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렇듯 예(24)의 ‘是嗎’는 가정과 사실, 진술과 인용의 분기점에 출현하여 장면의 전환을 알림으로써 화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 5. 결론과 함축

지금까지 본고는 상호작용 속 ‘是嗎’에 대해 빈도와 분포를 중심으로 한 양적 분석과 담화기능을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양적 측면에서, ‘是嗎’는 출현위치 상 (a)‘-,./。是嗎#’(59.6%, 무반응의 49.1%와 호응) > (c)‘-,./。#是嗎# -’(33.1%, 무반응의 30.9%와 호응) > (b)‘#是嗎。/, -’(4%, 무반응의 10.9%와 호응) > (d)‘-, 是嗎。/, -’(3.3%, 무반응의 9.1%와 호응) 순의 빈도를 보였다. 또한 사회 변인별로 보면, 사회자의 사용 빈도가 게스트의 사용빈도보다 월등히 높았고 게스트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분석으로서, ‘是嗎’의 담화기능으로는 (1) 명제 내용에 대한 확인 요구, (2) 담화 내용에 대한 확인 요구, (3) 청자로부터의 동의 요구, (4) 청자 의견의

인정과 이견의 완충, (5) 발화 지속과 정보의 구체화 요구, (6) 청자 의견의 조정 및 조율, (7) 주의의 환기 등이 관찰되었다. 이 중에서 (1)~(3)은 주로 'A: [\_\_\_\_\_, 是嗎]<sub>질문</sub> — B: [\_\_\_\_\_] <sub>대답</sub>'의 행위 구조에서, (4)는 'A: [\_\_\_\_\_] <sub>진술</sub> — B: [是嗎, \_\_\_\_\_] <sub>진술/질문</sub>'에서, (5)~(6)은 'A: [\_\_\_\_\_] <sub>진술1</sub> — B: [是嗎] <sub>是嗎</sub> — A: [(對) \_\_\_\_\_] <sub>진술2</sub>'에서 출현했다. 이 같은 결과는 반응의 필요성 측면에서, 청자의 반응을 요하는 (1)~(2)에서부터 '是吧'와의 경계가 모호한 (3), 또 청자의 반응이 있거나 없어도 되는 (5), 그리고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 (7)까지 나름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는 나아가, 아래 제시된 Traugott(1989, p. 31, (1))에 기대어볼 때, '是嗎'가 명제적(propositional[ideational]) 층위에서 담화적(textual[cohesion-making]) 층위로, 그리고 다시 화용대인적(expressive[presuppositional, and other pragmatic]) 층위로 소급의 범위를 확대시켜 가는 중에 있음을 추정케 한다.

propositional > ((textual) > (expressive))

(1)의 기능이 명제적 층위라면 (2)는 담화적 층위, (3)은 담화적 층위와 대인적 층위, (4)~(7)은 대인적 층위와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흐름의 추정이며 어느 한 기능이 반드시 어느 한 층위에 국한하여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是嗎'가 단일 기능단위로 점진적인 변화 중에 있음을 가늠하는 데는 나름의 참고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함축을 갖는다. 첫째, 자연 담화에 기초한 중국 언어 연구의 중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백화문 위주의 언어 연구는 상호작용 속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담화 장치들을 (어쩔 수 없이) 말버릇 정도로 치부해왔다. 담화표지 또는 화용표지로 불리는 예가 대표적인데,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기존 경향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의 분석 결과는 과거 주변으로 배제됐던 언어 항목들을 연구의 중심으로 불러들여 그것들이 실제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 변인들에 대한 관찰의 중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백화문 위주의 언어 연구는 담화 속 사회 변인들을 고려 대상으로 놓는 데 한계를 갖는다. 언어 자체만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회 변인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변인들의 배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언어가 사용되는지에 관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을 직시하는 데 한계를 짓는다. 그런 점에서 본고의 분석 결과는 언어의 사용과 그 본질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이지원, 「현대중국어 '是(shi)' 부가의문문 형태의 질문-대답 인접쌍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21(1), 2014년.
- 屈承熹, 『漢語功能篇章語法—從認知、功能到篇章結構』, 臺北: 文鶴出版有限公司, 2010년.
- 方梅, 「疑問標記“是不是”的虛化—從疑問標記到話語—語用標記」, 沈家煊, 吳福祥, 馬貝加 主編, 『語法化與語法研究』(二), 北京: 商務印書館, 2005년.
- 劉月華, 潘文娛, 故韓 著, 『實用現代漢語語法』(修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1년.
- 相原茂, 石田知子, 戶沼市子 著, 박귀진, 민병석 해설, 『왜리는 질문에 속시원히 답해주는 중국어문법책』(개정판), 서울: 시사중국어사, 2007년.
- 楊永龍, 「句尾語氣詞“嗎”的語法化過程」, 吳福祥 主編, 『漢語主觀性與主觀化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11년.
- Biq, Yung-O, James Tai, Sandra Thompson, Recent Developments in Functional Approaches to Chinese, In C.-T. J. Huang, Y.-H. A. Li eds., *New Horizons in Chinese Linguistics*,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6년.
- Biq, Yung-O, The Grammaticalization of *Jiushi* and *Jiushishuo* in Mandarin Chinese, *Concentric* 27(2), 2001년.
- Brown, Penelope, Stephen C.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년.
- Chang, Chia-ling Lisa, Application of Politeness Theory to Tag Questions Translated from English to Chinese, M. A. Thesis, Providence University.

- Taizhong, 2006년.
- Chen, Hsin-wei, Yes-No Questions in Mandarin Chinese Between Form and Function, M. A. Thesis.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pei, 2000년.
- Du Bois, John W., Stephan Schuetze-Coburn, Susanna Cumming, Danae Paolino, Outline of Discourse Transcription, Edwards, J. and Lampert, M. eds., *Talking data: Transcription and coding in discourse research*, NJ: Lawrence Erlbaum, 1993년.
- Hu, Ching-chi, Question tags in Taiwan Mandarin: Discourse Functions and Grammaticalization, M. A. Thesis.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Taipei, 2002년.
- Li, Charles N. & Sandra A. Thompson 저, 박정구, 박종한, 백은희, 오문의, 최영하 역, 『표준중국어문법』(수정2판),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1년.
- Ross, Claudia, Jing-heng Sheng Ma, *Modern Mandarin Chinese Grammar*, Oxon: Routledge, 2006년.
- Sacks, Harvey, Emanuel A. Schegloff, Gail Jefferson,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1974년.
- Schegloff, Emanuel A., and Harvey Sacks, Opening up closing, *Semiotica* 8(4), 1973년.
- Schegloff, Emanuel, A., Discourse as an interactional achievement: Some uses of 'uh huh' and other things that come between sentences, In Deborah Tannen ed., *Georgetown University Round tabl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82년.
- Traugott, Elizabeth Closs, On the Rise of Epistemic Meanings in English: An Example of Subjectification in Semantic Change, *Language* 65(1), 1989년.
- Wang, Yu-Fang, The information sequences of adverbial clauses in Mandarin Chinese conversation,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7(2), 1999년.

鳳凰電視臺: <http://phtv.ifeng.com/>

AntConc: <https://www.laurenceanthony.net/software/antconc/>

F5: <https://www.audiotranskription.de/english>

YouTube: <https://www.youtube.com/>

〈Abstract〉

A Study of *Shima*(是嗎) in Chinese Interaction: Focus on the Uses  
in TV Talk Show *Qiangqiang san ren xing*(鏗鏘三人行)

Park, Chan-Wook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various aspects of the use of language found in practice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of frequency and distribution, and qualitative analysis of discourse function as an analysis target for ‘是嗎’ used in the interaction process.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presents quantitative results aggregated from the analysis target, and then interprets the meaning of each aggregated value. Then, after analyzing the discourse function of ‘是嗎’, we discuss the meaning of it in the interaction process. In quantitative analysis, ‘是嗎’ appeared at four different frequencies at four different locations, and responded to various responses. Besides, in the quantitative relationship with social variables, the frequency of use of ‘是嗎’ by the host overwhelmed that of the guest. This shows that the use of language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interaction and the role assigned to it. As a qualitative analysis, the discourse function of ‘是嗎’ includes (1) a request for confirmation of the proposition, (2) a request for confirmation of the discourse contents, (3) a request for agreement from the listener, (4) recognition of the listener’s opinion and ease of conflict, (5) demand for continuation of speech and specificity of information, (6) coordination and coordination of listener opinion, and (7) appeal for attention. This paper implies the importance of Chinese language research based on natural discourse and observation of social variables in language use research.

Key words: *Shima*(是嗎), discourse function, interaction, institutional discourse,  
TV talk show

이 논문은 2020년 4월 10일에 접수되어 2020년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5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